

여성친화도시 안내





● 여성친화도시 안내

Contents

I	여성친화도시의 이해	4
	1. 글로벌 프로젝트로서 여성친화도시	4
	2. 여성친화도시의 정의	6
	3. 여성친화도시의 비전 및 목표	7
II	여성친화도시 조성 영역 및 과제	10
	1. 여성친화도시 조성 범위와 영역	10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	10
III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	17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단계	17
	2.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단계	17
IV	국내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	19
	1. 국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례	19
	2.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21

1. 여성친화도시의 이해

1. 글로벌 프로젝트로서 여성친화도시

가. 도시공간의 성 인지적 접근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요구와 일상을 반영하여 도시 공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성의 요구와 일상을 반영하여 도시 공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북미에서 시작된 안전한 도시에 대한 여성 운동의 요구와 성 평등한 정주 여건이 모든 인간의 정주 조건을 보장한다는 유엔인간정주위원회의 문제제기를 수용하면서 확산되었습니다.

안전한 도시에 대한 여성 운동의 요구

- 1970년대 북미지역 30여개 도시에서 여성운동가들이 '안전한 밤길 캠페인' 시작
- 캐나다 몬트리올 여성들은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시정에 여성의 참여 증대, 여성의 관점에서 안전한 계획과 설계를 지향하는 'Femmes et Ville' 조직
- 2002년 여성안전 회의(Making the Links,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men's Safety)에서 7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과 안전한 도시에 관한 각종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무장애 공간으로서 도시 (Barrier-free Society) 실현을 제안
- 무장애 도시(Barrier-free Society)는 인종이나 성별, 연령에 대한 차별 없이 교육받고 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 시민권이 보장되는 공간

나. 평등정책이 구현되는 도시



여성친화도시는 성 평등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유럽과 북미 이외의 나라들은 1995년 북경행동강령이 채택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MDGs(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시를 여성친화적으로 개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엔인간정주위원회의 여성친화도시 여건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 유엔인간정주위원회 : 성 평등 지방자치단체(Gender Responsive Local Governments)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친화도시 지표 발표

* 여성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메커니즘, 정치와 의사결정, 재산권과 고용안전, 교육과 건강, 안전, 경제활동, 매체와 소녀 등 8개 영역 71개 지표

영역	지표
지방수준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메커니즘	· 도시차원의 성평등 정책이 있는가 · 도시에서 성인지적 관심을 도시개발정책에 결합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가
정치와 의사결정에서 여성	· 지방정부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몇 %인가 · 도시에서 여성 승진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실행되고 있는가
재산권과 고용안전	· 빈곤에 대해 성별 분리통계가 생산되고 있는가 · 퇴거가 발생하면, 새로운 정착지역에서 일시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이 있는가
교육과 건강	· 교육 정책은 젠더 이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가 · 여성에 대한 건강교육 증진 프로그램이 있는가
여성의 안전	· 도시에 폭력위험지구를 알려주는 지도가 있는가 · 도시 내 경찰서에는 여성을 위한 데스크가 있는가
경제활동	· 지방정부에는 모성휴가/아버지 휴가가 있는가, 휴가는 며칠인가 · 도시에서 남녀 임금 격차는 얼마인가 · 가족 돌봄, 영유아나 노인 서비스가 있는가
여성과 매체	· 도시의 지역 방송기관에 성인지적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이 있는가
소녀	· 지난 해 도시에서 어린이 학대가 얼마나 발생했는가 ·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출처: UN-HABITAT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2007), TOWARDS WOMEN FRIENDLY CITIES



유엔인구기금의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

- 유엔인구기금 : 이스탄불을 거점으로 지방 정부, 여성 조직, NGO, 대학 등 300여개 지역파트너들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 수행

영역	내용
지방의사 결정기구에 참여	· 도시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며 여성위원회를 신설한다 · 지방 전략적 행동계획 준비에 여성 NGO가 조언하며 전략실행에 참여를 보장한다
도시 서비스	· 도시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수요와 요구를 발견할 수 있는 연구를 강화한다 · 도시에서 여성의 이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통 체계를 조율한다 · 도시계획, 주택 공급, 도시 교통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 공무원들이 성인지적 예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예산 수립에 여성 NGO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폭력과 여성	·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긴급전화를 개설한다 · 경찰서에 여성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경제적 역량과 전문직	· 직업기회 창출에서 성 평등 원칙을 지킨다 · 경제적 역량을 증진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실시한다
교육과 건강서비스	· 장애 여성과 아동에게 무상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예방적인 건강 서비스의 질과 양을 강화한다
이주여성과 빈곤	· 도시 이민 여성이 직면한 문제 등에 대한 연구 조사를 실시한다 · 이주 여성 중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 여성에 대해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출처: The United Nations Joint Programme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2010), Women Friendly Cities

2. 여성친화도시의 정의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3. 여성친화도시의 비전 및 목표

가. 여성친화도시의 비전



여성친화도시는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는 지역발전을 지역의 일상을 지탱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지역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과정에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추진체계를 갖추며, 가족을 포함한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 여성친화도시의 4대 가치



여성친화도시는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첫째,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은 지역 내 참여의 기회, 자원과 서비스 접근성과 배분,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 등의 측면에서 정의롭고 형평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공간적·사회적 측면에서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발전과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배려입니다.

배려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 육성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적 성별 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돌봄을 남녀가 공유하며 사회가 적극 부담하는 일-가정 양립의 환경 촉진을 추구합니다.

셋째,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이라 함은 인간과 자연 간 공생의 철학에 기반하여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삶의 전환을 촉진하는 지역발전을 의미합니다.

넷째, 소통입니다.

소통은 행복의 원천으로서 친밀한 관계를 촉진하는 주민 공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갖춘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도시 운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목표



여성친화도시는 4대 가치를 기본방향으로 도시 전반에 구현함으로써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첫째,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구축은 공간정책과 사회정책의 측면을 모두 포괄하므로 여성정책부서만의 노력으로 실현하기 어려우며 모든 부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적극적 의지와 함께, 법·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체계 정비 등이 필요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을 도시발전의 수혜자로 보는 제한된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발전의 주체로 전제하고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입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들의 기여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보고되고 있듯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은 여성 자신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유익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내 기업의 성 평등한 고용관행을 촉진하며 여성·가족 친화적 기업을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사업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도시생활의 불안을 더 크게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친화도시의 공간적 배치와 조경, 사회적 안전장치를 통해서 여성과 약자는 물론, 모든 주민이 도시의 모든 공간에서 안전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의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건강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건강과 활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식수, 먹을거리, 가족의 건강문제에 더 민감하고 식품오염으로 인한 피해, 새집증후군과 아토피 등 환경관련 피해로부터도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김양희 외, 2004). 이에, 여성친화도시의 각종 시설 기준과 공간 디자인에서 여성의 친환경적/생태적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등 각종 생태계의 위기 징후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던 산업화 시대의 오류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도시정책에 생태적 감수성을 통합하고 주민 삶의 생태적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지역 내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여성들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여성의 다양한 교육, 문화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단체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공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지역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신도시 개발, 주거단지 조성 등 지역정책 과정에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실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일상에 관한 요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여성 주민이 전문가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방향

비전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가치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	
목표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추진과제	도시기반조성	공공서비스 활성화	제도인프라 구축		
	도시계획 프로젝트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		
	주거단지 조성 프로젝트	여성지원기관 네트워크	친화도시 민관 협의체 운영		
	도로 및 교통 프로젝트	여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여성특화거리조성 프로젝트	가족친화마을 조성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확대		
	돌봄 편의시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성주류화 제도 정착		
	녹지 네트워크 구축		행정 추진체계 구축		

II. 여성친화도시 조성 영역 및 과제

1. 여성친화도시 조성 범위와 영역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정책영역과 성별영향평가의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도시 공간의 개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도시’는 행정단위로서의 ‘시부(市部)’를 의미하기 보다는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구가 밀집해서 공동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서의 지역을 나타냅니다.

여성정책 영역은 여성발전과 성 평등을 촉진하는 법·제도 및 추진체계, 공직 및 의사결정에 성 평등한 참여, 여성의 일과 경제적 권한, 여성인력 양성과 성 평등한 교육 및 문화, 여성의 건강과 복지, 폭력방지, 돌봄 서비스 등 일-삶의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해당합니다.

도시 공간 정책 영역은 도로, 주택, 학교, 병원 등 물질적 시설과 행정, 법률서비스 등 비물질적 서비스를 포함하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포괄적 접근권과 편리한 사용 여건, 공공이용시설의 친환경적 개조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여건 조성, 택지 조성 계획 등 신규 도시계획 수립 전 과정에 여성 참여 활성화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가족친화마을’이 포함되어 여성친화도시는 돌봄과 소통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가족친화마을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기초과제와 그러한 인프라를 토대로 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심화과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추진기반이 되는 5가지 사업을 기초과제로, 여성친화도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가지 운영 사업을 심화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가. 조성 기반 구축과 기초 과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 과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기반이 되는 과제들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수립된 중앙정부, 광역자치체의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사업 방향 및 목표가 연계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방향과 목표, 추진체계, 주요정책과제와 연차별 추진계획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 내용에는 성 주류화 계획, 돌봄의 사회화, 건강증진, 여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으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협의체는 여성의원, 전문가, 안전도시 모니터링단, 여성관련기관 센터장, 여성공무원, 여성단체장 등이 포함되어 일상 생활의 문제와 요구를 전달하고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지역 여성 통합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각종 위원회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 등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4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리직 여성 공무원 목표제, 핵심부서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배치 등을 통해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정치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정책의 성 주류화 제도를 정착시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여성정책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작성 활성화를 통해 정책의 성 주류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주민 요구에 부응하고 주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담당 시·군·구 공무원은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관리직 공무원 역시 성인지 교육을 우선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인지 교육은 공무원 양성평등 전문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 활성화와 심화 과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심화 과제는 여성친화도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으로 제시되는 과제들입니다. 따라서 운영 프로그램은 도시 공간 정책과 여성 참여 또는 네트워크 구성 및 사회 정책 간 연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첫째, 여성·아동 안전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거주지 시민들이 스스로 위험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지킴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방식에 근거한 여성·아동 안전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

* CPTED는 영미권에서 발전된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와 사고위험 예방수단인. 경보거나 CCTV 설치와 같은 기계 의존적 감시 방법을 일반 시민의 지역 환경에 대한 관심에 의한 자연적 감시로 변화시킨다는 의의가 있음. 지역주민들은 그룹을 편성하고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외부인이 들어가기 쉬운 장소」와 「보기 어려운 장소」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고 지역 당국에 제언함.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지역의 CPTED 설계 지침

영역	내용
분야별 시야선 확보	· 건축물 설계, 도시 계획 시 분명한 시야선을 확보하여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 · 수목의 식재 형태 및 크기를 일정하게 하여 은닉장소 제거(나무 높이를 0.7~2m로 제한)
정확한 표시로 정보 제공	· 표지판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 도심 상점에는 '모두가 서로 지켜준다'는 스티커 부착 · 조금이라도 그늘지고 한적한 도로에는 감시 카메라 작동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쾌적한 공간설계 지향	·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사용자에게 안락감 제공
적합한 조명 사용	·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 설계
고립지역 개선	· 시야가 닿지 않거나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곳, 사람의 통행이 적거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유사시 구조요청이 어려운 지역은 과감하게 없앴
사각지대 개선	· 감시가 곤란한 지역은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없앴
대지의 복합적 사용 증진	· 다양한 복합시설 배치로 활용도를 높여 시설 이용도 증진 ·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로 안전 확보
활동인자 증대	· 도심에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작은 상점 개설하고 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계획
영역성 강화	· 특정 지역에 대한 소유감, 영역성 부여로 안정감 느낄 수 있게 함

출처: www.CPTEDOntario.ca

CPTED 방식을 통한 도시개선 사례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교실〉



〈창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교실〉



〈컨크리트 벽면으로 폐쇄적〉



〈철조망 벽면으로 변경하여 영역은 유지하되 개방성 높임〉

출처: www.CPTEDOntario.ca

둘째, 여성 센터 연계를 통해 여성의 능력 개발 및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 내 여성교육훈련기관, 각종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총괄과 생활권별 적절한 안배가 필요합니다.

* 생활권이란 도보로 10~20분 이내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로, 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서 마을회관, 자녀들을 위한 놀이터와 청소년센터, 여가와 관련된 생활체육시설 등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다(이미원, 2009).

셋째,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와 제도를 겸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친환경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체계를 갖추고 생산적인 업종 개발을 통한 수익구조 창출이 가능한 양질의 사회적 기업 확산을 통하여 여성들의 일하는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취업 유망직종 직업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연계 실효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네번째, 가족 친화 마을을 조성합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 돌봄 인프라 참여와 가족이 함께하는 마을 문화 조성 사업 지원을 통한 가족 친화 마을을 조성합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돌봄 역할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조성 및 아버지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가장 기본적인 가족친화마을 요건입니다. 가족친화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그린 스쿨, 그린 육아지원 사업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가족친화 공동체 확산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어머니 센터(Mother Centers)를 통한 지역 공동체 개발

Mother Centers는 독일에서 일어난 자력 운동 조직이며, 최근 20년 동안 15개 국가에 전파되어 750개가 넘는 센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유엔인간정주위원회(UN-HABITAT)로부터 '최고의 사례'로 공인받았습니다.

어머니 센터에서 여성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발표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과 연결하여 보육, 노인 돌봄, 급식서비스, 중고가게, 장난감 가게 등과 같은 활동들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환경(family friendly environments)을 지역사회에 정착시켰습니다. 어머니 센터는 '공공의 거실(public living rooms)'이라고 불리는데, 교회, 공공건물을 빌리거나 무상으로 공간을 기부받기도 하고, 때로는 기업체 사옥의 일부를 기증받기도 하며 정보, 지역 문화, 지역에 대한 지식의 교환의 장(場)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지역공동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성들에게 어머니 센터는 세부적인 사항들로부터 시작하는 지역공동체 안의 시험적인 공간 만들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motherscenter.or.kr>

* 가족친화마을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을 의미함.

다섯째,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건강관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고하여 지역 주민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해 친환경 공간을 확산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의 모성건강에 국한되었던 여성건강의 문제를 종합적이며 효율적인 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LA 여성중심 의료센터(Feminist Women's Health Center) 사례



로스앤젤리스의 여성중심 의료서비스 센터(Feminist Women's Health Center)에서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여성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신, 출산, 피임, 낙태, 폭력 등에 대해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합니다. 또한 여성의 생리적인 문제와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여성의 선택과 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지역특성화 과제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과제는 일과 공공서비스 그리고 여가환경 등 분리된 공간을 연결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기능적 도시 공간화 사업과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해(interests)를 정확히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집단이 가진 기술과 자원을 기부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특성화 사업은 여성친화도시에서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지역 여성문화자원과 자연경관 등을 활용하여 지구 또는 가로, 건축물 등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 특수 사업

영역	내용	세부내용
도시계획	공간적·사회적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생활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특수한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한 법제도 · 정책결정기구에서의 여성참여 보장 · 설계와 시공에 여성 전문가의 참여 · 교통체계의 여성 편리성 · 도시디자인의 조명 등에서 여성의 안전 · 여성의 직장과 가정 양립지원구조 · 여성간의 네트워크 구성지원 · 여성 일자리 보장 · 성별영양평가 실시 여부
주거단지	돌보는 직업 또는 이동성 제약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과 생활 편의에 맞춘 디자인 기획·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를 배려 · 놀이 공간을 주택의 중심부에 배치 · 이웃과의 의사소통을 촉진 할 수 있는 공간 · 고립된 공간이 없는 개방된 공간 · 상업시설과 주차장과의 관계는 짧은 동선
	주민복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연계한 열린 문화시설 ·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프로그램
	다세대 하우스	· 세대간 돌봄의 공유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유니버설 하우스	· 노인세대와 일반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주거공간
여성특화거리	여성역사를 부각시키고 지역 정체성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과 관용의 문화 프로그램 · 야외 공연장, 동상과 시비 등 기념물 활용
도로 및 교통	보행친화 도로망	· 단추 누르는 신호, 보행신호 시간연장
	주차장	· 접근성 및 이동성 양호한 설계, 조명
	교통 표지판	· 성평등 디자인
돌봄 편의 시설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를 위한 돌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유실 · 채유 및 보관에 필요한 시설 · 유아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 아동 동반시 임시 보육방 · 유모차 보관 및 대여 시설 · 유아동반자 카운터 설치
녹지 네트워크	마을 녹색 지도 만들기 네트워크	· 가정 화단, 옥상 정원, 공원, 하천녹지, 녹색가게 등 파락과 연결 녹도 조성

III.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단계에서는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여 모두가 대상이 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도시 만들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주민과 지역 공동체를 도시 조성의 적절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지원합니다.

첫째, 기초작업을 진행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초 작업의 단계에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지정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여건 검토, 과제 발굴 워크숍 및 실/국별 과제 발굴 보고회 등의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를 정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 및 과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공청회를 거쳐 조례 제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합니다.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및 세부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는 여성친화도시 전문가에 의한 교육 및 컨설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2.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단계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여성친화도시 계획에 의거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평가 및 신규 사업 발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사업 평가는 시민과 함께 수행해야 하며 결과는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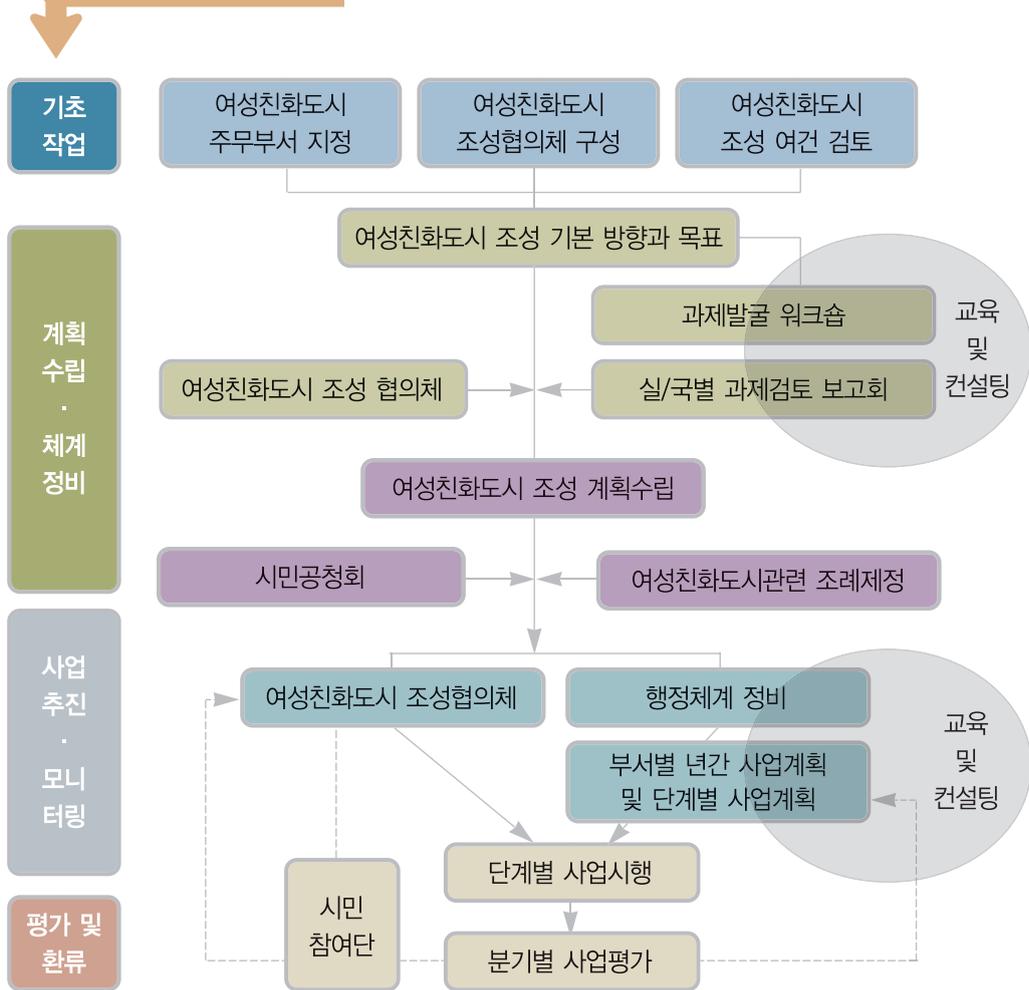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부서별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각종 협력 회의를 조직하고 사업 과정을 모니터링 합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규 사업이 발굴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활동을 평가하는 시민평가단, 일일 명예시장, 주부 기자단, 시민 회의(town-meeting)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 과정을 평가하고 환류합니다.

사업 추진과정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목표에 따라 평가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향후 추진 방안을 수립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평가는 시민과 함께 수행합니다. 평가의 목적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목적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진단하는 것이고, 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합니다. 부서별 세부 계획 수립과 시민 참여 사업 담당자에게 전문가의 컨설팅이 제공되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도 적절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



IV. 국내 여성친화도시 조성 · 확산

1. 국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례



국내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도시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서울시, 익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신도시 건설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등이 추진되면서 도시계획, 주거단지 등 기존의 여성정책 영역이 아닌 지역정책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려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별영향평가의 확산과 함께 도시기본계획, 주거단지, 도로 및 공공 건축물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2006년에는 경기도 김포신도시 건설사업의 성별영향평가연구, 2007년에는 대구광역시 혁신도시(팔공이노밸리) 건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연구가 여성가족부 심층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김포장기지구 신도시를 양성평등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활발하게 도시기본계획 및 뉴타운 사업, 도시디자인 계획, 공원조성 등의 사업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여행프로젝트,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단위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도시 공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해 온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이하 여행 프로젝트)' 나 익산시와 여수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시 정책 전반에서 여성을 배려하는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여성가족부에 의해 제 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은 2008년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을 수립하면서 제안되었습니다. '익산시 여성정책중장기 발전계획' 은 정책의 목표를 평등한 도시, 안전한 도시, 건강 도시로 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 목표 및 과제 역시 여성정책중장기 발전계획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기존의 여성정책이 추진해 왔던 고용, 돌봄, 인적자원개발 등의 사업 영역 이외에 도시 공간 또는 도시 서비스의 영역에서 여성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여성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성과

구분	추진 실적
여성정책 추진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5 익산시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2008. 8 여성친화도시 실행계획 수립 · 2009. 3. 26 여성친화도시(제1호)로 지정 및 협약 체결 · 2009. 7. 28 노인여성정책과에서 여성친화정책과로 개편 · 2010. 10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조례 제정 · 2010. 3 ~ 8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조사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 추진 · 26개 부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참여, 실행계획 사업 검토보고회, 분기별 추진상황보고회 등으로 행정전반에서 여성정책 추진
교육 등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관련 워크숍 개최 및 참가 · 2010. 3 여성친화도시 지정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여성친화도시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시민참여 등 거버넌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10~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 '다같이 돌아 동네한바퀴' 활동을 통해 거주지역에서의 여성친화적 개선요소 발굴, 건의 ·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시청, 주민센터 등 30개소에 여성친화도시 의견 수렴함 운영(2010. 1~)
생활밀착형 정책추진으로 시민편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시설의 여성친화적 업그레이드 및 여성화장실 시설개선 · 여성을 위한 콜택시 제공 · 보행편의 개선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인증 · 여성친화 시범거리 조성(중앙동 특화거리, 하나로 상징거리) · 여성 우선주차면 확보를 위한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 운영(전체 보육시설의 34% 운영) · 여성아동안전을 위한 CCTV 설치 · 임신부 280 건강관리 서비스(임산부 지원 특수시책)
도시 이미지 개선 및 홍보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11 전주 MBC 특집 다큐멘터리로 여성친화도시 방송 · '대한민국 여성친화도시 1호'로 각종 언론 보도 · 여성친화도시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감성 도시 이미지 구축 ·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추진으로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시범도시 지정(2009)



〈 여성 우선주차면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 〉



〈 어두운 버스승강장에 조명설치 〉



〈 산책로 진입로 개선 〉



〈 공원 내 유모차 대여 서비스 〉

2.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여성가족부는 2009년 3월 전북 익산시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10개의 지방자치 단체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 교육·컨설팅 등 정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전북 익산시가 제 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2009년 12월 여수시에 이어 2010년 충북 청주시 등 8개 도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여성친화도시의 확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성친화도시 현황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09년 지정
(서울) 강남구, (경기) 수원시, (경기) 시흥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군, (대구) 중구, (대구) 달서구	'10년 지정
(경남) 김해시, (경남) 양산시	'11년 지정 후보도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정립 및 기준 마련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발전방향 연구'(2009, 이미원 등)를 추진하였으며, 2010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개발'(유희정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의 비전 및 목표, 조성과정을 정교화 하였습니다.

또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2009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 및 사례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도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정도시의 정책추진을 위해 지정도시에 대한 분야별 정책컨설팅, 우수추진사례 발굴 및 홍보, 여성취업 및 안전 관련 사업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관련 토론회, 세미나 등 정책연구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도시유형별 여성친화도시 모델 연구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지역사정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추진모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Women Friendly City

여성친화도시

여성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그림은 새의 날개짓을 시각화하여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역 발전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림은 생명력 있게 솟아오르는 줄기를 표현하여 생명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염원을 담고 있다.

앞 부분의 곡선은 여성의 부드럽고 섬세함을 상징하며, 파랑, 보라, 연두의 세 가지 색은 '희망' '평등'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